

# 광양 2022년 '관광객 500만명 시대' 연다

백운산 치유·힐링공간 조성  
섬진강 뱃길 복원하고  
이순신대교 주변 테마거리  
시,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광양시는 오는 2022년 관광객 500만명을 목표로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관광진흥기본계획은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주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축제·이벤트, 관광코스, 안내체계 구축,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개발계획을 단기,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담게 된다.

관광행정과 지역민, 지역 콘텐츠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양시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광양을 대표하는 백운산은 치유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한다.

백운산 4대 계곡에는 2020년까지 가족공원과 힐링 쉽터, 생태탐방로, 수변 체험 시설 등을 설치한다.

섬진강은 해양레저 체험공간으로 조성한다.

섬진강 끝자락인 망덕포구 일대는 망덕산~천왕산출렁다리과 강변산책로, 해상보도교가 설치되고 2020년에는 망덕포구에서 배알도까지 현수교가 완공된다.

옛 나루터를 복원하고, 짚라인과 강변캠핑터, MTB체험장, 래프팅장, 강수욕장, 캠핑장 등을 조성한다.

광양만을 가로질러 여수시 모도와 광양시 금호동 사이를 연결하는 이순신대교 주변에는 해변 관광 테마거리가 조성돼 친수 문화관광으로 거듭난다.

광양만과 이순신대교의 야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구룡산 전망대 일대에는 둘레길과 별빛광장이 들어선다.

이밖에 광양의 대표 먹거리인 숯불구이를 주제로 요리경연대회를 열고 체험형 축제인 바비큐 캠핑페스티벌도 열린다.

광양시는 정확한 관광지 정보 제공을 위



광양시는 백운산을 치유와 힐링공간으로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광양 백운산 휴양림 일대 항공사진. <광양시 제공>

해 관광안내판을 정비하고 관광자원, 교통, 요리, 편의시설 등의 정보가 담긴 앱을 개발할 방침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민선 7기에는 취약한 관광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

획"이라며 "이순신대교를 중심으로 해변관광 테마거리와 섬진강 뱃길복원, 구룡산 관광타운 조성 등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백계산 동백림 세계 최고 수준 조성기로

다음달 1일 용역 최종보고회

광양시가 백계산 동백림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오는 10월 1일 오후 4시 시청 상황실에서 시의원과 전문가,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계산 동백림 조성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계산 동백림 특화단지 조성' 관련 기본계획용역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한 세부연구내용에 대한 최종 점검이 진행된다.

앞서 시는 백계산 일원에 국내 최대 동백군락지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기본계획 용

역을 착수하고 1000ha를 대상으로 대상지 현황과 조성여건 분석, 동백나무 식생 및 동백림 조성·관리방안 등을 구성해 왔다.

또 동백을 활용한 자원화 방안과 경제성 분석, 관리운영,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연도별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지역특화 조립사업 규모 확대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서는 등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천년의 역사가 살아 있는 백계산에 동백 특화림 조성이 완료되면 도산국사마을을 뿐만 아니라 인근 자연휴양림과 식물생태숲, 치유의숲, 목재문화체험장 등과 연계되면서 이곳이 산림생태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동백림이 조성될 광양 백계산 일대.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특화모델 개발과 관련 6차산업을 육성해 지역브랜드화를 도모

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광양시, 전남도교육청과 '온종일 돌봄 사업' 협약

광양시가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손을 잡았다.

광양시는 최근 전남도교육청과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연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양시와 전남도교육청은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모델 개발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광양시는 돌봄서비스 운영 확대와 돌봄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각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때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를 잇는 교육·돌봄 공동체 실현으로 초·중·고등학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광양시, 남북교류 신사업 발굴 박차

문화·예술·경협 등 6건 추진  
한반도 평화시대 정착 앞장

광양시가 최근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에 따른 남북교류 신사업 발굴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후 정부 기조에 발 맞춰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남북교류협력 계획' 구상과 신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예술, 농업·산림, 산업·투자, 대외협력 분야 팀장들과의 논의를 거쳐 분야별 6건의 남북교류 사업을 발굴했다.

시는 이번에 발굴한 6건의 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남북한 관련 단체의 의견을

거쳐 최종 핵심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전남도와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남북교류사업 신사업 추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4·27 정상회담에 이어 최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 간의 긴장완화로 남북교류 사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경제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개성공단 인근 송악산 등에 매실나무를 심는 사업과 광양감자농장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광양시 책 문화 축제' 다음달 3일 개최

김영하 작가 초청 강연  
그림책 놀이공연 등 다채

광양시가 다음달 3일 '책의 갈래, 꿈의 날개'라는 주제로 희망도서관에서 '2018 광양시 책 문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광양시 책 문화 축제'는 시민과 도서관이 모여 만드는 책과 문화의 장으로 열리고 있다. '2018 책의 해'를 맞아 어린이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다.

본격적인 축제에 앞서 28일 오후 3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살인자의 기억법'과 '검은 꽃' 등의 소설로 알려진 김영하 작가를 초청해 '나는 왜 창의적이지 않을까' 사전을 주제로 기념 강연이 열린다.

행사 당일인 다음달 3일에는 희망도서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책 문화 축제행사가 진행된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꿈나무극장에서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감성 시인 글베우가 '격정하지 마라'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또 같은 시간 배움교실에서는 북 에이전시 '책과 강연'의 이정훈 대표가 '내 책을 서점에서 만나는 기적'이라는 주제로 최근 출판계의 화두로 떠오른 독립출판의 노하우와 글쓰기 플랫폼에 대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오후 1시 30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꿈나무극장, 배움교실, 유아자료실에



서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놀이공연이 열린다.

이번 그림책 놀이 공연에는 최덕규, 박민수, 고수진 작가를 초청, 사전 신청한 어린이들과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한다.

아외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책 표지 바꿔 그리기 대회'가 진행되며 개막식과 버블쇼, 움직이는 세계음악극, 지역서점 도서 할인전, 책 교환전, 각종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열린다.

광양시 관계자는 "올해가 책의 해인만큼 책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아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에 접근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며 "이번 책 문화 축제에 가족 단위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좋은 추억도 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본 투시는 고역의 이점을 즐기 위해 제쳐놓았으며, 실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임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슈빌 정문, 모아엘가 푸른, 대성베르빌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딩 | (주)성원 | (주)은플러스  
시공 | 기본종합건설

시행하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 2018년 마음챙김 시민대학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일상의 행복과 삶의 가치 재발견을 위한 마음챙김 시민대학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적인 태도로 지각하는 것, 대상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되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일상 속 알아차림
- 모집개요
 

자격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마음과 명상 이야기, 감정탐색, 마음 들여다보기, 그저 이해하는 깊은 명상, 페르소나, 마음도형 함께 그리기, 춤 테라피, 바디스캔, 하타요가 등	45시간	20명
- ※ 강사 : 광주여자대학교 전임교원
- 모집기간 2018. 09. 03(월) ~ 2018. 09. 28(금)
- 교육기간 2018. 10. 02(화) ~ 2018. 11. 22(목)
- 교육시간 매주 화, 목 18:00 ~ 21:00
- 교육장소 광주여자대학교 강의실 및 실습실(추후 안내)
- 교육특전 교육비 지원(재료비 포함),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등
-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접수  
방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어등관 1층 315호 평생교육원  
전화 : (062)950-3583~5

"마음을 관찰하다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미묘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때 직관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더 명료하게 사물을 보게 되며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스티브잡스(1955-2011)

주최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Gwangju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 주관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